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마게도냐인의 환상」(행 16:6~10)은 선교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환상은 선교의 범위와 목적(참조, 롬 1:5; 16:26) 그리고 방향을 뚜렷하게 재조명해 줄 만큼 선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단연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그 길도 막혀 버립니다. 이렇게 된 주요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성령님(혹은 예수의 영)의 존재와 사역임을 밝혀 줍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며 바울과 그 일행은 이 환상이야말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됩니다.



(드로아와 마게도냐)

캠벨 몰간은 ‘유럽에로의 이러한 침투에 대해 바울은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분명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로아로 가는 것이 그분 없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유럽대륙은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2천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머물러 있던 곳은 유럽대륙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를 생각해 볼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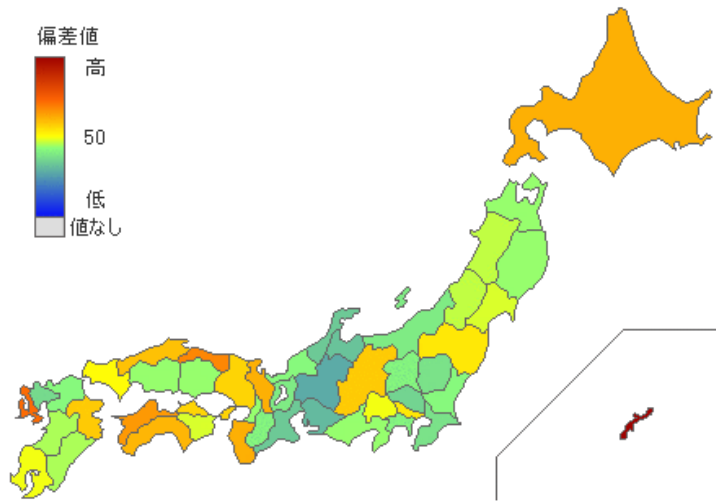
1.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환상과 일본선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복음화는 인간의 계획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복음화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1859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 일본의 기독교는 올해로 163년을 맞이합니다. 이 긴 역사 가운데 일본기독교는 2번의 큰 성장(혹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타이쇼시대(1912~1926)전후이며, 또 다른 하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기입니다. 그러나 일본기독교는 일본의 군사대국(1930년대)과 경제대국(1980년대~1990년대)이라는 꿈에 막혀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21세기의 일본과 일본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사대국과 경제대국의 꿈을 상실한 일본의 미래와 그에 따른 일본기독교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일본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대륙을 복음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일본열도를 복음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9,10)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참조, 온 4:11)라는 주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도 선택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일본의 복음화를 믿고 있습니다.



(일본지역별 교회수, 로마가톨릭교회 포함)

참조)인구 10만명당 교회수, 편차치 높으면 교회수가 많고, 낮으면 교회수가 적음
편차치가 제일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이며, 제일 낮은 지역은 기후현이다

2.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50주년선언-「전도의 선언」(5번째)

지난해(10월, 12월)와 올해 2월, 3월 선교편지에 이어서 이번 선교편지에서도 특히 50주년 기념선언(1996년 5월) 중의 하나인 「전도의 선언」을 번역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도의 선언은 척박한 일본 땅에서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의 전도론이기도 합니다.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눅 13:6~9)처럼 보이지만, 일본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주(主)의 1996년 5월 3일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창립 50주년기념 임시대회
일본전도의 시점(視点)

8. 현대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전도

우리는 지금 이 일본에 있어서의 전도를 주님으로부터 위탁된 임무로서 자각합니다. 가치관이 현저하게 다양화하고 상대화되고 있는 현대, 많은 일본인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근대 일본사회에는 지금도 여전히 고래(古來)의 종교전통과 옛 도덕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하나님 없는 생활 및 우상숭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날 때만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해방되는 것을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화가 진행되고 효율만이 추구되는 경향인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소외와 환경파괴가 조장되고 현대인의 사고와 생활은 그 희생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경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교감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억압과 차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상처입고 고통받고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어져야 함을 자각합니다.

우리는 이 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까지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금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쌓아 가면서 교회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 현대일본 전도와 천황의 종교적 성격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사는 많은 일본인은 동시에 지금 여전히 고래(古來)의 종교전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전도에 있어서 천황의 종교성에 관계되는 문제는 피해서 통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찍이 천황은 신격화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국가의 목적에 순응하지 않은 소수자에 대해서 유형 무형의 탄압이 천황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대단히 압박받고 우리 교회도 왜곡되고 진리는 담대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기독교 전도는 두드러지게 방해 받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일본교회도 천황을 현인신(現人神, 아라히토가미)이라고 하는 국가신도의 의례를 거절할 수 없었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기까지 한 것을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천황은 정치적 역할의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연하게 특성의 종교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제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천황제는 그 심층(深層)에 있어서 많은 일본인의 마음 바닥에 있는 고래(古來)의 종교의식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 때문에 천황은 용이하게 일본의 정신적 지배자로 간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왕의 왕, 주의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전도를 천황제에 집약되는 일본인의 오래된 종교적 심성과 일본적 집단주의에 대한 영적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계속)

』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이누야마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청(마 11:28)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동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4월의 종려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에배(4월 17일, 성찬식 거행)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3. 연로하신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그리고 새신자들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소서
4. (이 기도제목은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의 공식 기도제목입니다)
러시아가 더이상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않고 곧 바로 철수하게 하소서
5. 주은/주향:
주은-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의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향-교회에서의 외국인 간사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넘치게 하소서
6.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7. 우리 부부가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며 일본영혼을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2022년 4월 1일(금)

일본 이누야마(犬山)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